# 나란다축제 군장병 2년 연속 만점 '대상'

## 혜제존 상병·고준태 일병 공동수상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26일 시상식
### 제12회 은정장학금 전달식도 진행

제5회 나란다축제 군장병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만점 수상자가 배출됐다. 해제존 상병(포병여단 808대대 232사)과 고준태 일병(육군 군수사령부 제6한약병 본부중대)은 나란다축제 군장병부문 공동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100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9월7일 실시한 제5회 나란다축제 공모 군장병부문과 사관생도부문 등 개인상과 단체상, 특별상 수상자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새롭게 시상된 사관생도부문에 대상은 김지연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와 민경원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가 공동대상을 차지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소속인 박진영 안양 연현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한준석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각각 대상의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단체상 대상은 새롭게 신설된 사관생도부문에 양산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차지했다. 간호사관학교는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군생사의 부재 등 여건은 포교 여건하에서도 법회실시의 법륜 등을 통해 나란다축제 참가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9월7일 현장에서 공과가 발표된 초등부문과 일반부문 부산 보국사 소속 이은지 덕두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한국불교대학 대관람사 월지도량 연꽃사랑원(양기순·김종영·이태윤)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국인부문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HONG CHAN LAI' 씨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특별상부문은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 다가도로 권토한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한 광명지구광어자주학교 3학년 학생 등 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나란다축제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14시 한국불교문화사업회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또한 이날 시상식은 제12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진행된다.

한편 올해 확대·개편된 나란다축제는 지난 9월 7일과 8일, 그리고 11일 3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여곳 시험장에서 실시됐으며, 동국대 만해관장에 설치된 문화행사팀 광에인외까지 11만여 명이 동참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나란다축제는 인관 후 장병들을 이끌 예비 장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사관생도부문의 신설이 눈길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수상자 전원이 1원대 박병의 승부를 펼친 군장병부문이 약진도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고등부 개인상 수상자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지역적 편중현상을 보였으며 초등부문은 지역별 예선전을 거쳐 결선에 오른면서 어린이 법륜이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만팩 기자 pakmac@bulgyo.com

한국불교문화 체험 차 한국을 방문한 중국불교협회부회장 정즈스님(오른쪽)이 지난 21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면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신재호 기자 ash3rd@bulgyo.com

## 한국불교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 중국 큰스님 정즈스님 예방

한국불교 수행체험 차 한국을 방문 중인 조계불교협회 소속 국제교교사 스님들이 지난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중국불교협회부회장이자 소장파 방장인 정즈스님은 "중국불교협회장 광인스님을 대신해 3대 총무원장 을 축하드린다"며 "올해사에게 서 4박5일간 한국 사찰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수행의 정수를 체험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불교문화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22일 중국 하이난 산야에서 열리는 16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기원했다.

한편 중국 취세이성 쌍태 사조사와 오조사 스님 40여명으로 구성된 지난 중국대표단은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해 4박5일간 화엄사에서 선수행을 체험하고 21일 출국했다.

이현경 기자 ecmaster@bulgyo.com

### 본·말사 주지인사

10월22일 중수된 지

인덕스님 대한 공원장

지추스님 원인 공원선원

도서스님 서울 도선사

장봉스님 여수 지장대사

도인스님 서울 대각사

■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 '현장'

## 한국불교 종파가 보살승가? 조계종까지 규정한건 '무리'

### 이자랑 교수, 마성스님 주장 '반박'

"조계종은 물론 한국의 모든 불교 종파는 '보살승가'이다. 왜냐면 한국불교는 처음부터 대승불교의 계율전통을 전승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경임교수 마성스님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자랑 교수

마성스님

'한국불교의 계율 전통 - 근·현대 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중심으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마성스님은 "한국불교의 계율전통은 상좌계의 계맥으로 동아시아의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상좌부 전통과 같이 구족계 을 백이 그대로 전승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비구승가인가 보살승가인가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는 승가로서 위상정립이 더 필요'**

마성스님의 주장에 대해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조계종을 보살승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대승보살에게 구족계를 대승계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자랑 교수는 "조계종이 비구승가인가 보살승가인가의 양자택일이 아닌,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는 사문처지의 승가' 로서 중수해야 할 규범들의 내용과 형식, 역할 등을 통일시키고 통일해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불교학술대회에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은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원향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해서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의 권한 의문과 관심은 불교문화 이해의 하나라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서라벌은 지역 중심지가 아니라 실크로드의 기점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이어 대해 신대현 사물문화연구원 연구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실크로드 루트와 달리 '중국 시안(西安)이 실크로드의 기점이 아닌 중심' 이며 '그 기점이 경주' 라는 새로운 제시는 매우 매력적인 이론이자 제안"이라면서 "상상력는는 논지를 제시할 경우 이는 불교문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고대사에 있어서 획기적 성과"라고 지적했다.

이�हाबोधि 이날 불교학술대회에서는 소 한국불교교리 보편성과 특수성 - 들리면 '마법' 과 잃혀져 적 '달성' 디양성 동국대 교수 법묘, 석길암 금강대 HK교수 논문) 스한국불교의 선법수용과 그변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리호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발표, 동국대 교수 종호스님 논문)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대회장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직무대행 마산스님과 대학원장 보각스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saee@bulgyo.com

## 한마음 인성교육 프로그램

### '꽃을 피우는 나무' 전국 보급

**포교원, 업무협약 체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운스님)과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마음과학원이 개발 운영 중인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 꽃을 피우는 나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해지스님의 '청소년 10분 집중명상-마음 청소년 명상캠프' 와 월호스님의 '청소년 힐링캠프 가이드북', 적경스님의 '심담이 있는 상담' 등에 이어 사반째로 협약을 통해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로 보급하게 됐다.

1996년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으로 모태로 한 한마음과학원은 지난 2006년부터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뒤 전국 각 초중고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10주는 나타는 이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생명공동체로 전제한 뒤 나와 주변세계를 이해하며 변화발전의 참조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조화롭게 살아가기는 힘든 대표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10년의 학습경험구체프로그램, 수원 세류중학교의 광마개선프로그램으로 보급되는 등 큰 조짐을 일어켰으도 관내 혁신학교에 교재로 보급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01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 에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상' 을 수상한 바 있다.

포교원장 지운스님은 "오랫동안 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완성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해 준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민혁 기자

**청년대학생 장학생 모집**

**포교원, 11월 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운스님)은 청년대학생 주수혜자 장학생을 오는 11월1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대학생을 시원적 리더와 불교계 지도자로 육성해가 위해 대한민 국한 장학생 공모사업은 10명 내외의 대학생 불자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희망자는 조계종 산도인 대학생(학학생자), 동규학기 초과자 제10으로서 조계종 사랑 주지 또는 지도법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없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포교원 전법지원팀으로 받은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게 되고 오는 11월20일 선정공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동명세계선센터 개원식

논이 시리도록 밝고 푸른 날입니다.
이와 같이 밝고 푸른 날에 귀하를 동명대학교로 초대합니다.
동명대학교가 새로운 비상과 도약을 위하여 4년 전부터 추진하여 온 동명세계선센터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여 드디어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종합학교를 제외한 380개 대학에 유일하게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하고 이제 동명세계선센터까지 개원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수한 대학으로 발돋움 솟게 놓으려 합니다. 부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중순 날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일 시 2013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장 소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 주 최 | 동명세계선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문의 051)291-1176, 629-2521

붓 다 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